

시민과 함께,
자유로운 혁신도시 안산

안산토크

12





수암마을전시관 내외부 모습 사진 ● 김규훈 명예기자

수암마을전시관 & 수암면사무소 터

안산시 상록구 수암동의 과거와 현재를 동시에 보고 느낄 수 있는 장소다. 수암마을전시관은 본래 수암경로당으로 사용되던 건물을 리모델링 해 만든 곳으로 경로당 건물구조를 그대로 유지해 낮은 천장과 칸칸이 작은 공간으로 이뤄졌다. 2층 전시실에는 큰 창문이 있어 수암봉과 안산객사를 한 폭의 그림처럼 감상할 수 있다.

전시관 뒤편으로는 안산읍성 객사 터가 있다. 수암면사무소가 있던 곳으로 수암면사무소 터에서 발굴된 주춧돌이 전시돼있다. 수암면사무소는 항일 독립운동이 펼쳐진 역사적 장소다. 1919년 3.1운동 당시 안산에서는 일제의 무단통치를 반대하며 하부 통치기구였던 수암면사무소와 수암주재소로 몰려가 만세운동을 펼치기도 했다.

운영시간 화~일요일 10~17시(12~13시 이용 제한) | 휴관일 월요일, 1월 1일, 설날 및 추석 연휴
장소 안산시 상록구 원당골3길 34 | 관람료 무료 | 문의 031-481-2794



contents

- 04 **특집 ①** | 한파 대비 국민행동요령
- 06 **특집 ②** | 무료법률상담부터 세무상담까지 한 번에!
시민 무료법률상담실&우리동네 마을세무사
- 10 **안산TALK** | 시정소식
- 12 **기획 ①** | 안산 땅이름 이야기
상록구 월피동
- 14 **기획 ②** | 안산에 가보고 싶다
안산갈대습지공원
- 16 **톡톡 명예기자가 간다**
- 23 **의회소식** | 안산시의회
- 24 **우리동네** | 상록구와 단원구
- 26 **참여마당①** | 독자투고
- 28 **참여마당②** | 나비잠
- 30 **시민TALK** | ADIOS 2022!
- 32 **알림마당** | 추천도서, 문화소식
- 35 **방송TALK, 일자리정보, 토크(TALK) 퀴즈**

Vol.508



coverstory

김장 봉사활동 현장

지난 11월 18일 상록구 사동에 위치한 행복나눔터에서 '다함께 김치!' 주제의 김장나눔축제가 열렸다. 이날 행사에는 안산시자원봉사센터를 비롯한 50여 개 봉사 단체에 자원봉사자 300여 명이 참여했다. 이날 담긴 김장김치 1천200박스(10kg)는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에게 전달됐다. 사진은 행사에 참여한 자원봉사자가 작업 중인 김장 배추를 들어 보이며 웃고 있는 모습.

사진 ● 안산시

발행일 2022년 11월 24일

발행인 안산시장 이민근

발행처 (15335) 안산시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 대변인

e-안산톡톡 www.ansantalktalk.net

무료 정기구독 신청

Tel 031.481.2042 **E-mail** ansannews@korea.kr

홈페이지 안산시홈페이지 ▶ 안산소개 ▶ 시정소식지 <안산톡톡> 무료신청

-  @ansancity3
-  @ansancity
-  ansancity
-  ansancity
-  안산시청
-  cityansan
-  안산시유튜브

안산톡톡을 매월 모바일로 받아보는 방법

- ①카카오톡 친구 '안산시청' 검색
- ②카카오톡 채널 추가버튼 클릭
- ③완료



스마트 폰으로도
<안산톡톡>을
만나볼 수 있습니다.



한파 대비 국민행동요령 꼭 기억하세요!

한파는 겨울철에 온도가 갑자기 내려가면서 들이닥치는 추위를 말한다. 기상청에서는 한파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될 때 한파주의보와 한파경보를 발령한다. 안산시에는 대설, 한파 등 겨울철 자연 재난 종합대책을 세워 사전 안전관리와 예방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

평상시 한파 대비를 위해 TV와 라디오, 인터넷 등을 통해 한파 관련 기상 상황을 수시로 확인하고 추위에 필요한 용품이나 보온 조치 등 관련 정보를 주변 사람들과 미리 공유해야 한다. 또 무리한 신체활동이나 장시간 야외활동을 자제하고 따뜻한 곳에서 휴식을 취해야 한다. 저체온증 등 한랭질환 증상에 대비해 집과 가까운 병원 등을 사전에 파악하고 어린이와 노약자 등은 미리 연락처를 알아두어 한파 대처 상황을 꼼꼼히 챙겨야 한다. 사전에 한파에 대비한 대처법을 익혀 피해를 예방하고 한파 관련 재난안전 사고 유형 등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국민행동요령을 반드시 확인하자.

한파 시 주의사항!

- ① 한파특보 시 노약자와 영유아가 있는 곳에서는 난방과 온도관리에 유의하기
- ② 외출 시 장갑과 모자 등 방한용품을 챙겨 동상에 걸리지 않도록 주의하기
- ③ 동상에 걸리면 비비지 말고 따뜻한 물에 30분가량 담그고 온도를 유지하며 즉시 병원으로 이동
- ④ 수도계량기, 보일러 배관 등은 헝 옷 등으로 보온하기
- ⑤ 장시간 외출 시 온수를 약하게 틀어 동파 방지
- ⑥ 도로가 얼 수 있으니 차에 스노체인 등 월동용품 준비와 부동액 등 자동차 점검하기

한랭질환 예방을 위한 안전 수칙!

- ① 외출 시 모자와 목도리, 장갑 등 방한용품 챙기기
- ② 실외에서 겨울 놀이를 즐길 때는 주기적으로 따뜻한 곳에서 휴식하기
- ③ 추운 곳에서 작업할 때는 여러 벌의 옷을 입고 보온과 방수에 신경 쓰기





한랭질환에 걸렸다면?

- ① 증상 발생 시 즉시 병원으로 이동
- ② 미지근한 물에 20~40분 정도 담그고 따뜻한 물수건으로 얼굴과 귀 닦아주기
- ③ 동상 부위를 뜨거운 열에 노출하지 않기

겨울철 캠핑 안전 수칙

①난방기구 사용 주의

겨울철 캠핑에서 가장 조심해야 하는 부분은 일산화탄소 중독이다. 일산화탄소는 무색, 무취, 무미, 비자극성 가스이기 때문에 일산화탄소를 흡입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다. 밀폐된 텐트 안에서 화로와 부탄가스 사용을 자제하고 반드시 실내 환기를 해야 한다.

②보온용품 적극 사용

일산화탄소 중독을 예방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보온용품을 사용하는 것이다. 두꺼운 옷을 입는 것보다 얇은 옷을 여러 겹 입는 것이 보온성을 더 높일 수 있다. 겨울 캠핑에서 옷이 쉽게 젖을 수 있으니 여벌의 옷과 양말도 꼭 챙기자.

③전기제품 사용 주의

사용할 캠핑장의 전기 용량을 미리 확인하고 전기용품이 눈에 젖지 않도록 신경 써야 한다. 또 전기 릴선을 다 풀지 않고 사용하게 되면 화재 위험성이 있고 감아서 사용할 때보다 풀어서 사용할 때 용량이 더 커진다.

④화상의 위험

겨울철 캠핑 중 체온을 높이기 위해 불과 전열기구를 사용하면 화상 위험이 높다. 아이들의 경우 전열기구를 쉽게 인지하지 못할 수 있어 이를 대비해 화상을 유발하는 물품 근처에 야광 밴드를 사용해 사전에 안전사고를 방지해야 한다. 가장 많이 화상을 일으키는 핫팩을 사용할 때도 바로 피부에 사용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시민 무료법률상담실에서 법률상담받으세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잠정 중단했던 시민 무료법률상담실이 지난 11월 1일부터 야간 상담 운영을 재개했다. 안산시청 민원동 1층에 위치한 시민 무료법률상담실은 평일 월~금요일 14~16시(주간), 화요일 19~21시(야간)에 운영된다. 야간 상담 이용 시 1, 3, 5주차에는 변호사가, 2, 4주차에는 공인중개사가 각각 야간 상담관으로 상담업무를 맡는다. 상담은 사전 예약이 필수다. 아래는 안산시에서 무료 법률상담을 맡은 한수산 변호사와의 인터뷰.



한수산 법률사무소 대표
한수산 변호사

⑧ 이곳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상담신청인의 말씀을 듣고 현재 어떠한 법률적 문제가 있는지 검토한 후 소송 등 정식절차가 필요한 경우 소장 작성 및 관할법원 등 제반 절차를 안내합니다. 정식절차가 필요치 아니한 경우에는 가장 합리적인 해결방안에 대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⑧ 주요 대상층은 누구인가요?

법률적 접근이 어려운 안산시민입니다.

⑧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현재 시점에서 상담신청인에게 가장 유리한 대응 방법이 무엇인지 설명하고 소송 시 증거 방법에 대해서도 설명해드립니다. 크게 문제가 없는 경우 현재 상황 역시 설명해드립니다.

⑧ 실제로 이곳을 통해 도움받은 사례가 있나요?

임대인과 임차인이 모두 오셔서 법률상 해결을 요청하셨던 사안이 있었는데 양측 모두 법률상 문제점이 있는 사안이라서 간단한 중재안을 마련해드려서 원만히 해결되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외에도 대여금을 받지 못한 상담인에 대한 지급명령 신청서 작성 방법을 알려드리거나 형사고소 등 방법, 소 제기 방법 및 소송 중 대응 방법 등 상담신청인이 궁금해하는 부분에 대해 상담을 통해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⑧ 법률상담 전 챙기면 좋은 자료가 있을까요?

일단 소송 중이라면 소장이나 증거들을 지참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구체적인 증거를 지참하면 관련 민형사 절차에 대한 설명이 쉽습니다. 또 개인 회생이나 파산신청의 경우 채권자가 누구인지 및 재산 상태를 미리 숙지하면 좋습니다.

⑧ 마지막으로 안산시민에게 한마디

안산시 시민 무료법률상담실을 방문하는 모든 시민과 더욱 공감하며 소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산시민 모두의 안녕을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안산시 시민 무료 법률 상담실 이용안내



**사전예약
필수**

상담시간

(주간) 월~금 14:00~16:00
(야간) 화 19:00~21:00

상담시간	상담요일	상담관
주간 14시~16시	월, 화, 목, 금	변호사
	수	법무사
야간 19시~21시	화	변호사(1, 3, 5주차) 공인중개사(2, 4주차)

상담장소

안산시청 민원동 1층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상담대상

안산시민 누구나

상담방법

전화 또는 방문상담

상담내용

생활법률, 건축민원, 임대차계약, 등기 등

상담비용

무료

시민무료법률상담실 예약번호 031-481-2699

세금 고민도 마을세무사에게 직접 상담받으세요!

마을세무사는 주민들의 세금 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로 세무 상담 서비스를 재능기부 방식으로 제공하는 세무사를 말한다.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을 대상으로 국세와 지방세 세무 상담과 지방세 불복청구 등 관련 상담을 진행한다. 안산시는 2016년 6월부터 지역주민의 세금 고민 해결을 돕고자 마을세무사 제도를 운영 중이며 총 12명의 마을세무사가 상담을 진행한다. 이용은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 홈페이지 등에서 연락처를 확인한 후 상담을 신청할 수 있다. 아래는 우리동네 마을세무사로 활동 중인 박금서 마을세무사와의 인터뷰.



신안세무회계 대표
박금서 세무사

이곳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요?

영세납세자와 시민들의 세금 고민과 문제 해결을 돕기 위해 국세와 지방세에 대한 세무 상담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안산시 25개 동에 총 12명의 마을세무사가 있습니다.

주요 대상층은 누구인가요?

경제적 어려움으로 세무 상담을 받기 곤란한 시민들이 직접적인 대상입니다. 일정 금액 이상의 재산이나 소득 보유자는 상담 대상이 아니지만 세금에 대한 일반적인 궁금증에 대해서는 안산시민이면 누구나 상담받을 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나요?

세금은 기본적인 사항에서부터 사회보험, 각종 보조금 등에 이르기까지 많은 부분에서 출발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한 세금 문제에 대해 세무사를 통해 A부터 Z까지 해결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곳을 통해 도움받은 사례가 있나요?

거래금액 조정을 통해 소형 주택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해드리거나 사업자등록 유형을 변경해 납세자의 절세에 도움을 드린 것 등 다양한 사례가 있습니다.

세무 상담 서비스 이용 전 챙기면 좋은 팁이 있을까요?

세금 문제는 사후 처리가 아닌 사전 상담을 통해 준비하는 것을 권합니다. 만약 문제가 발생한다면 걱정하기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을 인지하고 전문가와 상담을 통해 해결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안산시민에게 한마디!

세금 문제는 누구에게나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금에 대해 어려워 마시고 마을세무사를 찾아주시면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을세무사

세금 고민, 무료로 상담해드립니다!



마을세무사란?

주민들의 세금고민 해결을 위해 무료 세무상담 서비스(재능기부)를 제공하기로 약속한 우리 이웃 세무사입니다.

이용 대상

취약계층, 영세사업자,
전통시장 상인 등
세무사 이용이
어려운 주민

※ 생활이 어려운 주민을 우선
상담하기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재산 보유자 등의 경우
상담이 제한될 수 있음.

상담 사항

국세와 지방세
세무상담, 지방세
불복청구
관련 상담



이용 방법

행정안전부와 자치단체
홈페이지, 자치단체 민원실,
동 주민센터에 비치된 홍보
자료 등에서 마을세무사 연
락처 확인 후 상담신청

→ 전화·팩스·이메일 및
대면상담 가능



우리동네 마을세무사 찾아보기

담당동	성명	주소	사무실전화	팩스	이메일
원곡동, 신길동, 백운동	권재원	단원구 풍전로 37-24, 317동 404호 (원곡동, 트리플렉스)	031-495-1357	070-5030-5969	cta4916@nate.com
일동, 이동	박금서	단원구 화랑로 358, 115호 (고잔동, 자유센터)	031-480-1256~7	031-480-1201	ks1217@hanmail.net
초지동, 반월동	이영모	단원구 원고잔로 17, 예비뉴큐브시티 201호	031-402-5400	031-402-9119	leeymqqq@naver.com
본오 1,2,3동	정광영	단원구 화랑로 358, 212호(고잔동, 자유센터)	031-410-7300	031-410-3383	bs362636@naver.com
중앙동, 호수동	최장용	단원구 광덕대로 174, 월드타운 C동 516호	031-475-3100	031-475-3103	choijycpta@naver.com
선부 1,2,3동	형천호	단원구 광덕서로 66, 501호 (고잔동, 하늘법조빌딩)	031-487-1740	031-487-1743	gud1005@nate.com
안산동, 월피동	황인섭	단원구 광덕서로 68, 삼영빌딩 501호	031-405-8720	031-405-4720	nanotax1@nate.com
사동, 사이동	황인철	단원구 광덕서로 86, 906호 (고잔동, 안산법조타운)	031-403-4221	031-403-4220	dk.tax76@daum.net
고잔동	박재영	단원구 광덕서로 86, 503호 (고잔동, 안산법조타운)	031-495-3808	070-5001-2800	ctajy3808@gmail.com
해양동, 부곡동	권영원	단원구 화랑로 402, 503호 (고잔동, 신원빌딩)	031-413-1113	031-413-1114	ctayw@naver.com
성포동, 와동	안진우	단원구 원고잔로 17, 예비뉴큐브시티 215호	031-504-8235	031-504-8236	jwootax@naver.com
대부동	이기동	단원구 화랑로 358, 116호 (고잔동, 자유센터)	031-410-0608	031-410-0609	ctalee@kakao.com

문의처 | 안산시청 공정조세과 031-481-2198

소식 01

1회용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 사용규제 강화

안산시가 1회용품에 대한 사용규제 강화에 나선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12월 31일 개정, 공포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에 따라 추진된다. 이에 따라 11월 24일부터 그동안 식당과 카페 등 식품접객업소, 집단급식소에서 사용하던 1회용 종이컵과 플라스틱 빨대, 젓는 막대 사용이 금지되며 편의점, 제과점 등에서 유상으로 제공하던 1회용 봉투도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3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안산시는 환경부 지침에 따라 1년간 계도기간을 운영할 예정이다.

안산시 자원순환과 031-481-3538

소식 02

1천만 원 이상 고액·상습체납자 155명 명단공개

안산시는 최근 지방세 및 세외수입 체납액 1천만 원이 넘는 고액·상습 체납자 155명의 명단을 안산시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고액·상습 체납자의 경우 지방세 체납자 개인 98명, 법인 47개 업체 등이며 세외수입 체납자는 개인 3명이다. 이들의 체납액은 모두 177억 원에 이른다. 명단공개 대상은 올해 1월 1일 기준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난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액이 1천만 원 이상인 고액 체납자다. 올해 공개된 대상자 중 체납액이 가장 많은 법인은 취득세 등 6건에 2억 3천만 원을 체납한 A법인이며 개인은 지방소득세 1건을 체납한 B씨로 약 120억 원을 체납했다. 한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은 경기도 및 안산시 홈페이지와 위택스(지방세 납부 사이트)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안산시 성실납세과 031-481-3988

소식 03

내년부터 달라지는 '다운' 확인하세요!

안산시는 2023년부터 연간 매출액이 10억 원이 넘는 가맹점에 대해 안산화폐 '다운' 사용을 제한한다. 이번 조치는 경기도의 경기지역 화폐 가맹점 관리지침과 영세소상공인 지원, 골목상권 활성화 등 지역화폐 발행 취지를 높이기 위해 추진됐다. 경기지역화폐 가맹점 관리지침에 따르면 연 매출 10억 원 초과 가맹점은 사용을 제한하되 시민이 많이 이용하는 슈퍼마켓 등 도소매업, 병원, 약국, 학원은 적용에 예외를 두도록 하고 있다. 안산시의 경우 내년부터 사용 제한 대상에 포함되는 가맹점은 전체 다운화폐 가맹점 2만 2천179개소 중 350개소(1.5%) 정도로 예상된다. 시는 가맹점 지위 상실을 통보하고 이의신청 절차를 거쳐 가맹점 제한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할 계획이다. 또 부정 유통, 위조, 제작 비용 발생 등 꾸준히 민원이 제기돼 왔던 지류식 안산화폐 발행도 중단된다. 다만 기존에 구매한 지류식 안산화폐는 구매일로부터 5년간 사용할 수 있다.



안산시 경제일자리과 031-481-2921

소식 4

안산 쌍계사(雙溪寺) 신중도(神衆圖), 경기도 문화재자료로 지정

안산시 단원구 대부동 소재 전통 사찰 쌍계사에 소장돼있는 쌍계사 신중도가 경기도 문화재자료 제203호로 지정됐다. 신중도란 여러 신(神)을 뿔뿔이 그린 불화의 한 종류로 부처와 보살뿐만 아니라 용왕, 산신 등 토속신앙이 가미돼 우리나라만의 독특한 특징을 보여준다. 쌍계사 신중도는 가로 137cm 세로 149cm로 천 3폭을 이어 만든 것으로 화면 상단에 범천(梵天, 인도 고대 신화의 신)과 제석천(帝釋天, 불교를 수호하는 신들의 우두머리)을 중심으로 용뿔을 들고 메기수염을 한 용왕, 언월도를 든 신장(神將), 풀잎을 어깨에 두른 산신 등 토속신들이 함께 등장하고 갑옷과 무기, 공양물을 담은 그릇은 금박을 입혀 그 화려함을 더한 것이 특징이다.



특히 그림 제작 시기(1869년)를 명확히 알 수 있는 기록이 그림 하단에 있고 19세기 서울, 경기 지역의 신중도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어 보존 가치를 인정받아 경기도 문화재자료로 지정됐다. 신중도는 쌍계사 법당인 극락보전에 보관돼 있으며 일반 시민도 방문해 관람할 수 있다.

안산시 문화예술과 031-481-2796

소식 5

안산시, 재난관리평가서 식용수 분야 3년 연속 'A등급'

안산시는 최근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22년 국가핵심기반 재난관리평가'에서 3년 연속 식용수 분야 A등급을 받아 우수기관으로 선정됐다. 행정안전부는 매년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식용수, 에너지, 정보통신, 교통 수송, 보건 의료 등 11개 분야에 대해 총 152개 국가핵심기반시설을 대상으로 우수기관을 선정한다. 안산-연성 정수장에서 하루 33만 9000톤의 수돗물을 생산, 공급하는 안산시는 이번 재난관리평가에서 국가기반시설 보호대책, 중점 위험 관리, 재난 예방 및 대응 대책 등 8개 항목 14개 평가지표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안산시 정수과 031-481-2737

소식 6

안산시, 고급형·대형택시 도입

안산시는 최근 고급형·대형택시를 도입해 새로운 택시 수요 창출에 나섰다. 차별화, 고급화된 서비스로 택시업계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은 것은 물론 시민이 선택할 수 있는 교통수단도 더욱 다양해질 전망이다. 이번에 도입한 고급형·대형택시는 대중교통뿐 아니라 ▲공항 이동 서비스 ▲비즈니스 지원 ▲안산 관광 및 외국인 투어 ▲웨딩 서비스 등 관련 산업에도 변화를 불러올 것으로 예상된다. 또 비즈니스, 의전 수행 등 가격대별 수요에 맞는 차별화된 고급 교통수단을 제공할 수 있게 됐다. 한편 고급형·대형택시는 신고가 아닌 인가제로 사업용 자동차 구분 변경을 고급형·대형택시로 변경하려는 사업자는 시에 사업계획 변경 신청해 인가받아야 한다. 시는 50대에 한해 고급형·대형택시를 인가하고 향후 여건과 수요에 따라 단계적으로 추가 인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안산시 대중교통과 031-481-2956

땅이름에서 피어나는 안산⑱ 상록구 월피동(月陂洞)



시낭운동장



개발전 월피동

‘월피(月陂)’라는 이름은 마을 앞까지 바닷물이 들어오던 시절 만조가 되면 독이 언월(아직 반달이 되지 못한 초승달) 만큼 남는다는 표암 강세황의 시에서 유래됐다. 농토가 비옥하고 마을 앞에 안산천이 흐르던 곳으로 연년세세 풍년이 들어 예로부터 부자들이 많이 살았다. 조선시대 때 안산군 잉화면 월입피(月入陂)였으나 구한말 ‘잉화면’이 ‘인화면’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1912년 2월 5일 ‘월입피’는 ‘월피리’로 개칭됐다. 1914년 3월 1일 총독부령 제111호에 따라 안산군이 시흥군에 통합됐고 4월 1일 인화면이 수암면으로 통합, 개칭되어 시흥군 수암면 월피리가 됐다. 1986년 1월 1일 법률 제3798호에 따라 안산시 월피동(月陂洞)이 됐다.

다리피(月入陂) 월피동 서북쪽에 위치했다. 한자로는 ‘월입피’라 했는데 바닷물이 마을 앞까지 들어오면 독이 초승달처럼 보여 마치 달이 언덕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인다고 해 ‘월입피’라 했다. 신도시 개발 전에는 지석묘 6기가 있었다. 마을의 광덕산 동록(東麓)에 있는 애기봉을 중심으로 왼편(동북)은 도당산, 오른편(서남)은 안산이 있다. 광덕산에서 마을 중앙인 고정부리에 이르는 지역은 용(龍)의 등이 되므로 이곳에는 집을 짓지 못하고 양편에만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한다.



마산모퉁이 다리피 서남쪽 산(마산)모퉁이에 있던 마을이다. 조선 말엽 현재의 이동(二洞)에 살던 한모씨가 마산(馬山)에 있는 선대 묘를 관리하기 위해 정착하면서 취락을 형성했다.

말미산 부루지 뒷산. 말(馬)처럼 생겨서 '말미산'이라고 했다. 현재 부원빌라 동쪽에 있는 산이다.

부루지·부로지 다리피 동남쪽에 있던 마을. 구전에 따르면 이 마을 남쪽에 있는 산은 산세가 안정감을 주어 흡사 노적을 쌓은 것 같다고 해 '노적봉(露積峯)'이라 칭했고 뒷산은 말의 형상을 하고 있어 '말미산'이라고 칭했다. 또 현재 시낭운동장이 들어선 동북쪽에 있던 산은 본래 소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이처럼 이 마을은 소와 말이 노적을 가득 싣고 가는 형상을 하고 있으므로 곡식을 다락에 쌓아놓고 아무 걱정 없이 유유자적하며 생을 영위하는 마을이라 해 '부루지'라고 칭했다 한다. 마을 서편에 월피천(안산천)이 흘러 물이 풍부한 데다가 농경지가 비옥해 해마다 풍년이 들어 '부루지'라고 했다고도 한다.

진말 마을의 지세가 동, 서로 길게 생긴 마을이라 '긴말'이라 칭했다가 후대로 내려오면서 '진말'로 바뀌 부르게 됐다. 김무송의 후손인 김해김씨가 분가하면서 이곳에 자리 잡아 취락을 형성했다. 구전에 따르면 마을 동쪽에 있는 산부리가 진말을 향해 있어 남자가 난봉을 피우고 있는 형국이라 마을의 호(戶) 수가 늘지 않는다고 한다.



말미산



안산천

안산문화원 자료 제공





안산갈대습지공원의 가을



‘안산’에 가보고 싶다 안산갈대습지공원

올해 안산의 관광 브랜드 슬로건은 ‘in산in해 안산여행’이다. ‘사람인(人)’과 영어 단어 ‘in’의 동음을 활용해 아름다운 자연도시 안산을 찾는 사람들이 산과 바다를 이룰 정도로 많다는 의미를 담았다. 수도권 대표 해양관광지 대부도와 안산9경(景)은 물론 도심 속 근거리 여행지까지 안산의 숨은 장소들을 시리즈로 소개한다.

안산에서 만나는 도심 속 인공습지

안산갈대습지는 시화호의 수질개선을 위해 만들어진 국내 최초 인공습지다. 1997년 한국수자원공사가 시화호 상류 일대에 사업비 268억 원을 들여 조성해 2002년 5월 개장했다. 이곳에 심은 수생식물과 갈대 등이 자연정화 처리 역할을 하면서 도심 속에서 자연 생태계를 들여다볼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났다.

안산시민을 비롯해 많은 방문객이 찾는 안산갈대습지공원은 생태환경교육장 역할도 함께 하고 있다. 공원 안에는 여러 종류의 새를 관찰할 수 있는 조류관찰대와 생태체험 학습장 등이 마련되어 있는데 희귀하거나 멸종 위기에 처한 조류와 수달 등이 서식하는 모습도 볼 수 있다.

☞ 안산시 상록구 갈대습지로 76

사진 ● 이호현 명예기자

운영시간 하절기(3~10월) 화~일요일 10~18시

동절기(11~2월) 화~일요일 10시~16시30분

문의 안산갈대습지 관리사무소 031-599-9400





생생대장간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모습

사진 ● 이호현 명예기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이용하고 종량제봉투로 받아 가세요~!

안산시가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설치하며 고품질 재활용품 수거와 자발적 분리배출 유도에 나섰다.

기후 위기 대응과 자원순환에 대한 일상생활 속 요구가 높아지면서 재활용 쓰레기에 대한 정확한 분리배출이 필요해졌다. 하지만 분리배출과 수거 과정에서 오염되고 이물질이 섞인 재활용 쓰레기의 경우 실제 재활용률은 우리 생각을 밀돈다. 재활용할 수 없는 쓰레기를 매립하고 소각한다고 생각할 때 올바른 재활용 쓰레기 분리배출과 수거가 시급하다.

안산시가 최근 고잔동에 있는 생활밀착 종합수리센터 생생대장간 앞에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를 시범 설치했다. 이용자가 직접 투명페트병을 투입하면 무인회수기가 페트병을 분쇄하고 파쇄된 플라스틱 페트병 조각을 지사체가 수거해 재활용업체에 매각하는 방식이다. 먼저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을 제거한 투명페트병을 가져와 무인회수기의 디스플레이 시작 버튼을 누른 후 투입구에 투명페트병을 하나씩 넣는다. 이때 제거한

라벨은 무인회수기 옆 라벨수거함에 분리배출하면 된다. 투명페트병을 다 넣으면 종료 버튼과 착한 영수증 버튼을 차례로 눌러 내가 투입한 투명페트병에 맞게 포인트가 적립된 영수증을 받는다.

투명페트병을 다량으로 무인회수기에 투입하면 보상도 있다. 투명페트병 13개를 모아 투입하면 종량제봉투(5L) 1장을, 25개를 모아 투입하면 종량제봉투(10L) 1장을 각각 생생대장간에서 받을 수 있다.

안산시 관계자는 “이번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시범 설치 및 운영을 시작으로 투명페트병 분리배출, 재활용 활성화로 소각 및 매립량 축소 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안산시 투명페트병 무인회수기 시범 설치 운영 기간은 11월 한 달간이며 2023년 1월부터 시내 전역으로 확대 설치해 운영할 예정이다.

분리배출 핵심 4가지



비우고



제거하고



제거하고



종류별,
재질별로
구분



재활용품 품목별 배출방법

구분	재활용이 되는 품목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	배출 방법
종이류 	골판지류, 상자 신문지, 책, 노트, 종이컵 등	알루미늄 등 금속이 박힌 복합소재 종이, 택배전표, 영수증, 종이 호일, 사용한 화장지, 기저귀, 코팅된 포스터 등	• 물기에 젖지 않도록 반듯하게 펴서 배출 ※ 비닐포장지, 스프링은 제거 후 배출
종이팩 	우유팩, 음료수 팩, 쥬스팩 등		•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 제거하여 말린 후 배출 • 종이류와 구분하여 묶어 따로 배출
캔, 고철 	음료캔, 주류캔, 식품포캔	알루미늄 호일 내용물이 남아있는 락카, 페인트 통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유리병 	음료수병, 기타 병류	깨진 유리제품, 편유리, 사가도자기류, 조명기구용 유리류 등	•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 소주, 맥주 등 반용기 보증금 대상 유리병은 소매점으로 반납하여 보증금 환급
플라스틱 	플라스틱 용기, 트레이류 등	옷걸이, 칫솔, CD, 플라스틱 이외의 재질이 부착된 완구·문구류 등	내용물을 비우고 이물질을 제거하여 배출
무색페트병 	생수병, 우유병, 음료수병		내용물을 비우고, 라벨제거하여 압착 후 뚜껑달아 배출
비닐 	비닐포장재, 1회용 비닐봉투 등	캡필름, 식탁보, 천막, 현수막, 장판, 돛자리 등	흔들리지 않도록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스티로폼 	스티로폼 완충재	건축용 내·외장재 스티로폼, 음식물이 묻어 있거나 이물질 제거가 어려운 스티로폼	부착상표 등 스티로폼과 다른 재질은 제거한 후 배출
폐형광등 LED 폐간전지 	직관형, 환형 등의 폐형광등, 알칼리망간 전지 등	깨진 형광등	• 소량인 경우 : 행정복지센터 잔용수거함에 배출 • 다량인 경우 : 유선 수거요청(1666-1234)
의류 	면의류, 기타의류	이불·베개 등 침구류, 오염된 옷, 트렁크 가방 등	깨끗한 의류만 투명 또는 반투명 봉투에 담아 배출

재활용이 안되는 품목은 일반쓰레기 종량제봉투(빨)에 타는 것나 소량건설폐기물 마대(빨)에 타지 않는 것에 배출해주세요



이음카페 시청본관점

“장애인 바리스타로 자립, 희망 꿈꿔요!”

중증장애인들에게 일자리는 어떤 의미일까? 단순한 직업을 넘어 사회와의 소통 통로이자 자립의 큰 원동력일 것이다. 하지만 장애인들의 취업 문턱은 너무 높다. 보건복지부와 통계청이 조사한 ‘2020 통계로 보는 장애인의 삶’을 보면 장애인 취업률은 34.9%로 250만 명이 넘는 장애인 가운데 3명 중 2명은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며 중증장애인의 취업률은 16%에 그친다. 이 때문에 장애인들의 취업률을 높이기 위한 지원이 커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꾸준히 제기되면서 정부나 지자체 차원에서 장애인 자립과 재활을 돕는 공간을 지원하는 움직임이 많아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에 발맞춰 중증장애인의 자립을 돕는 공간이 안산에도 속속 들어서고 있다. 직업재활훈련시설인 ‘이음카페’와 중증장애인 채용 카페 ‘I got everything(아이갓에브리씽)’ 등이다.

안산시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운영하는 직업재활훈련시설 ‘이음카페’는 체계적인 직업재활 훈련으로 취업에 대한 긍정적인 경험을 제공한다. 이곳에서 교육프로그램을 수료하면 현장에 투입돼 근무하게 되고 근무 경험 이 1년 이상인 대상자 중 심화 교육프로그램(6회)을 통해 매니저로서 카페 총괄 업무를 담당할 수 있다. ‘이음카페’는 2010년 7월 시청별관점을 시



아이갓에브리씽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점

작으로 현재 6호점(미디어라이브러리점, 단원보건소점, 상록수보건소점, 중앙도서관점, 시청본관점)이 운영되고 있다. 모두 29명의 정신장애인이 바리스타로 일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자립을 꿈꾸고 있다.

박경원 매니저(이음카페 시청본관점)는 “이곳에서 일하면서 전보다 정신적으로 건강해졌다. 내가 만든 커피를 손님들이 맛있게 드시는 것을 볼 때 기분이 참 좋다”며 “배운 것을 가지고 다른 일반 카페에 가서도 계속해서 커피를 만드는 일을 하고 싶다”고 말했다.

보건복지부는 한국장애인개발원과 함께 중증장애인들의 재활 공간인 ‘아이갓에브리씽’ 카페를 운영하는데 최근 안산교육지원청점이 문을 열었다. 중증장애인들이 바리스타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이들의 자립을 돕는 공간이다. 특히 이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정부세종청

사를 비롯해 광역시·도청사 등 전국 공공기관과 민간기업 건물 내에 개설해 운영하고 있다. 그중 ‘아이갓에브리씽 안산교육지원청점’은 전국 81호점이자 경기도에서는 11번째로 문을 열었다. 매니저 1명과 안산지역 중증장애인 4명이 근무하며 사회 일원으로서 역량을 키워나간다. ‘아이갓에브리씽’이라는 이름은 ‘서로의 차이를 인정할 때 우리는 함께 할 수 있다’는 의미를 지닌다.

장애인들의 자립을 돕는 공간이자 희망을 꿈꾸는 공간인 ‘이음카페’와 ‘아이갓에브리씽’에서 따뜻한 커피 한잔을 하며 추위를 녹여보는 건 어떨까? 우리 주변에 장애인 자립을 돕는 공간이 계속해서 늘어나길 기대해본다.

권민수 명예기자 skyhigh5161@naver.com

이음카페

시청별관점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제2별관 1층
미디어라이브러리점	단원구 광덕1로 198, 안산미디어라이브러리 1층
단원보건소점	단원구 화랑로 250, 단원보건소 1층
상록수보건소점	상록구 차돌배기로1길 5, 상록수보건소 1층
중앙도서관점	단원구 안산천남로 14, 중앙도서관 별관 1층
시청본관점	단원구 화랑로 387, 안산시청 본관 1층

아이갓에브리씽

경기도안산교육지원청점 상록구 석호공원로5길 8, 안산교육지원청 별관 1층



인터뷰

영화 '짜장면 고맙습니다' 박영혜 감독

안산 구석구석 다니며 촬영

해외 영화제에 탄도향 아름다움 알려



핫하다 핫해~! TV 예능프로그램에서 배우 이태성의 어머니로 얼굴을 알렸던 박영혜 씨가 영화감독 데뷔를 위해 프로그램에서 하차한다는 소식을 전한지 얼마 후, 영화가 정식 개봉도 하기 전에 해외 여러 영화제 초청과 함께 수상 소식을 전하면서 연일 화제를 모으고 있다. 특히 이번 영화에 안산의 9경(景) 중 하나인 탄도 바닷길이 영화 주요 장면에 배경으로 등장해 큰 관심을 받았다. 내년 3월에 열리는 '제3회 칸 영화상' 초청작과 '단편영화·인권영화' 부문에 후보작으로도 선정되면서 영화 '미나리' 이후 최다수상 기록을 이어가고 있는 영화 '짜장면 고맙습니다'의 박영혜 감독을 지난 11월 14일 안산의 한 식당에서 만났다.

Q. 영화가 이렇게 화제가 될 것이라 예상했는지 소감이 궁금하다.

A. 꿈만 같다. 까막눈 할머니가 한 글자 한 글자 한글을 깨우쳐 맞춤법도 틀리고 빼뚫빼뚫한 글씨로 시도 쓰고 수필도 써서 막 화제가 되는 그런 상황 같다. 상업 영화도 아니었고 욕심을 가지고 시작을 한 게 아니었기에 오랜 기간 힘들게 준비하며 고생한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분들이 봤을 때 어떻게 생각할지 오히려 송

구한 마음도 있다. 그래도 영화를 계기로 우리가 큰 역할은 못 하지만 장애인 인권 문제에 대한 작은 돌을 던지는 역할 정도라도 하면 좋겠다고 생각했다.

Q. 첫 장면에 안산 탄도 바닷길이 등장해 인상적이었는데?

A. 영화 들어가고 첫 촬영지가 탄도항이었다. 영화는 장애가 있는 한 커플의 만남부터 결혼까지의 과정



을 담고 있다. 장애가 있건 없건 사랑을 느끼고 표현하는 것은 다 똑같다고 생각한다. 그들의 로맨스를 그렸고 실화를 바탕으로 했다.

Q. 이쯤 되면 안산과 어떤 인연인지 궁금해진다. 안산에서 영화를 찍게 된 배경은?

A. 현재 배우로 활동 중인 태성이가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 안산으로 이사 와 안산에 산 지 33년이 넘었다. 안산시자원봉사센터를 통해 그동안 꾸준히 장애인 봉사활동을 해왔고 영화에 등장하는 부부와도 그렇게 인연을 맺었다. 최근에 제가 TV에 출연해 얼굴이 알려지다 보니 우리 식당에 왔다가 알아본 손님들이 신기해하는데 저도 안산시민이라고 하면 많이들 놀라신다. 안산 구석구석을 다니며 촬영해서 안산이 주요 배경이다. 해외 영화제에서 탄도향이 아름답다며 반응이 좋았다.

Q. 영화를 제작하면서 기억에 남는 에피소드가 있나?

A. 올해 3월 말부터 준비하고 첫 촬영이 8월 5일이었다. 뜨거운 한여름이라 살이 다 탈 정도로 더웠다. 원래 캐스팅된 여배우가 사정이 생겨 어쩔 수 없이 현장에서 갑작스럽게 배우로 출연까지 하게 됐다. 고교 시절에 했던 연극부 활동과 무용 덕분에 몸으로 표현하는 것에 두려움이 좀 없기도 했고 예산도 없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다. 또 영화에서 주인공들이 식당에 가서 점주가 다른 손님한테 방해되니 나가라며 홀대하는 장면이 있는데 안산천 주변에서 촬영했다. 여주인공이 '내가 장애인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났나라며' 서럽게 우는 장면을 찍는데 비가 정말 엄청 많이 내렸다. 하루 종일 휠체어에 앉아 있는 것도 힘들었을 텐데 비를 쫓짝 맞으면서 촬영 중인 배우가 안타깝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내용도 가슴 아픈 장면이라 기억에 남는다.

Q. 영화감독을 하게 된 과정이 궁금하다.

A. 손자를 키우면서 책을 읽어주는데 아이가 좋아하니까 더 잘하고 싶어서 동화도 배우고 마술도 배우면서 아동 극단을 만들어 활동하게 됐다. 극단을 꾸려가며 직접 대본을 쓰고 무대의상도 만들고 연출을 하고 소품도 만들고 그런 작업을 계속하게 된 것이 여기까지 오게 된 것 같다. 함께 한 신성훈 감독님도 평소 장애인 인권 문제에 관심이 많았던 분이라 영화를 만들어보자고 제안해 함께 하게 됐다.

Q. 정식 개봉은 언제인지, 마지막으로 한마디

A. 이렇게 관심받게 될 줄 몰랐고 너무 갑작스럽게 벌어진 일들이라 아직 국내 배급사도 결정하지 못한 상태다. 아직 개봉 전이라 서울에서 첫 시사회를 했는데 일정을 급하게 잡다 보니 변화가에 시간도 오후였다. 영화의 실제 주인공인 부부를 현장에 초대했는데 휠체어 없이 이동이 어렵기 때문에 2시간이 넘게 택시를 잡지 못해 결국 시사회에 참석하지 못했다. 장애인 차량 지원 서비스를 예약하는 것이 쉽지 않았기 때문이다. 안산이었으면 하모니 콜 서비스라도 지원요청이 가능했을 텐데 안타까웠다. 안산에서 진행할 시사회에는 꼭 참석할 수 있도록 준비할 계획이다. 개인적으로는 가족 모두가 배우로, 음악감독으로 영화에 함께 출연해서 더 특별하다. 가족과 제작에 참여해준 주위 분들께 모두 감사하다.

송민아 명예기자 junseo1000@hanmail.net



※영화 '짜장면 고맙습니다'의 안산 지역 영화시사회는 지난 11월 22일 오후 무료로 진행됐습니다.

동지(冬至)

일 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세시풍속이 있다. 우리나라 농경문화를 반영하고 있는 세시풍속은 농경의례라고도 하며 명절에 버금가는 날로 행해지고 있다. 24절기 중 스물두 번째 절기인 동지는 일 년 중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다. 매년 양력 12월 22~23일 무렵으로 올해 동지는 12월 22일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작은설이라고 해 중요한 절기 중 하나인 동지를 소개한다.

동지의 유래

민간에서 동지는 아세(亞歲) 또는 작은설이라 했다. '태양의 부활'이라는 큰 의미를 지녀 설 다음가는 작은설로 대접했다. 오늘날에도 '동지를 지나야 한 살 더 먹는다', '동지팥죽을 먹어야 진짜 나이를 한 살 더 먹는다'는 말처럼 동지참치(冬至添齒) 풍속으로 전하고 있다. 또 동지는 날씨가 춥고 밤이 길어 '호랑이 장가가는 날'이라고도 부른다.

동짓날 음식

동지에는 붉은 팥을 고아 만든 동지팥죽을 먹는다. 팥을 고아 죽을 만들고 찹쌀로 단자를 만들어 넣어 끓인다. 단자는 새알만 한 크기로 새알심이라 부른다. 팥죽을 먹어야 한 살 더 먹는다'는 말이 전해지는 것처럼 새알심은 가족의 나이만큼 넣어 끓이는 풍습이 있다.

동짓날 팥죽을 만들면 조상님께 제사를 지내고 대문이나 벽에 뿌려 귀신을 쫓아 새해 무사안일을 빌곤 했다. 팥의 붉은색이 음기를 쫓는 데 효과가 있다고 믿었기 때문이다. 붉은 팥은 옛날부터 모든 잡귀를 쫓는 데 사용됐다. 팥죽 외에도 동짓날에는 청어를 먹는 풍습이 있었다.

동짓날 세시 음식을 차려 먹는 것은 한민족으로서 일체감과 결속을 다지는 의미가 담겨 있다. 가족과 이웃이 같은 음식을 나눠 먹으며 새해에는 건강하고 액을 면할 수 있기를 기원했다. 오늘날 연말이 되면 불우이웃 돕기를 펼치는 것은 동짓날 전통이 이어져 내려온 것으로 보인다. 이번 동짓날에는 이웃과 따뜻한 팥죽 한 그릇을 나눠 먹을 수 있는 시간을 보내길 바라본다.

참고문헌

이광렬, 『우리나라세시풍속』, 청연, 2005
국립민속박물관 민속연구과, 『한국세시풍속사전』, 국립민속박물관, 2006
안산시행복예절관 자료 제공



안산시의회, 제279회 제2차 정례회 ‘개회’

안산시의회는 지난 11월 22일부터 오는 12월 16일까지 25일간 일정으로 제279회 제2차 정례회를 개회했다. 정례회 부의 안건은 의원발의 조례안 5건과 2023년도 예산안을 포함해 총 45건이다. 이 기간 중 본회의의 3차례, 상임위원회 7차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9차례 개최된다. 11월 23일부터 12월 1일까지는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한 뒤 12월 5일부터 12월 14일까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열어 2023년도 예산안과 2022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예산안 등을 집중적으로 살필 계획이다.

안산청소년의회, 정책발표회 열고 활동 마무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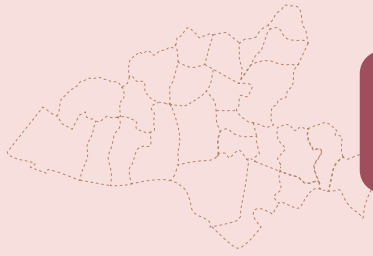
안산청소년의회는 지난 11월 14일 제2차 본회의를 열어 총 7건의 안건을 채택하고 7개월간의 활동을 마무리했다. 안산시의회와 안산교육지원청이 공동 주관하는 안산청소년의회는 지난 5월 구성된 이래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 체험을 통해 청소년의 시각으로 지역 발전을 위한 정책 발굴 활동을 벌여왔다. 이날 제2차 본회의에서의 안건 제안 설명과 의결로 그 결과를 공유했다.

본회의에는 청소년의회 의원 26명과 안산교육지원청 관계자 등이 참석했으며 함께 자리한 시의회 이진분 부의장은 축사로 청소년의원들을 격려했다. 아울러 박은경 의회운영위원장과 현옥순 문화복지위원장, 이지화 기획행정위원회 부위원장, 설호영, 선현우 의원은 심사를 맡아 청소년의원들이 제안한 정책을 평가했다.

이날 본회의장에서 제안 설명에 나선 청소년의원들은 동영상과 사진 등 다양한 시각 자료를 활용하면서 정책 타당성을 적극적으로 전달했다. 청소년의원들이 제안한 안건은 ▲안산시 신재생 에너지 등 친환경 미래 기술 관련 진로 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장애인 인식개선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외국인주민 상호존중 및 문화다양성 증진 교육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청소년 문화 복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 ▲안산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 안전 증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의약품 안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안산시 관광산업 활성화 및 다문화 인식 개선 위한 다문화거리 환경조성 조례안 등 7건이다.

한편 시의회는 이날 청소년의원들이 제안한 정책들의 심사 결과를 취합한 뒤 3편의 우수 정책을 선정해 12월 중 시상할 계획이다.





소셜 '상록수' 무대 '상록구'

사동 제21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 '장려상'

사동주민자치회는 지난 11월 12일 부산광역시 벡스코에서 열린 '제21회 전국주민자치박람회'에서 주민자치 분야 장려상(부산광역시장상)을 수상했다. 사동주민자치회는 이번 박람회에 '공동체와 자치, 10년의 역사가 주민자치회로 꽃 피다'를 주제로 응모했으며 우수사례로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특히 ▲재활용정거장 운영 및 연구 ▲이중언어 책 제작 ▲출산 및 입학선물 등 마을 특성에 맞는 프로젝트를 통해 행정과 주민 간 소통 연결고리를 만들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일동 하늘어린이집 '사랑의 라면' 기탁

일동에 위치한 하늘어린이집은 지난 11월 11일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라면 45박스를 일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이번 후원은 하늘어린이집이 개최한 '제7회 사랑 나눔 바자회' 수익금으로 이뤄졌다. 하늘어린이집은 2014~2019년 동안 아이들과 함께 바자회를 열어 우리 주변 이웃을 위한 후원을 해왔다. 정애숙 하늘어린이집 원장은 "지난 2년간 코로나19 사태로 중단됐던 나눔 활동을 올해 다시 할 수 있게 되어 기쁘다"고 말했다.



부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장수사진' 촬영

부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지난 11월 3일 관내 취약계층 어르신 40여 명을 대상으로 '장수사진' 촬영을 진행했다. 이번 촬영은 취약계층 어르신에게 생애 마지막 메시지이자 아름다운 마무리를 미리 준비할 수 있도록 사진 촬영을 지원하는 내용이다. 최종훈 부곡동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간위원장은 "장수사진은 어르신들의 건강과 장수를 기원하는 의미를 담는다. 어르신들의 아름다운 모습을 남겨드릴 수 있어 뜻깊은 시간이었다"고 말했다.



단원 김홍도를 기리는 ‘단원구’

신길동 신길동주민자치회, 안산지역아동센터에 후원금 전달

신길동주민자치회는 지난 11월 10일 신길동에 위치한 안산지역아동센터에 후원금 1백만 원을 전달했다. 이번 후원금은 지난 10월 22일 열린 ‘제3회 신길동 낭만정원축제’ 나눔 장터 수익금과 신길동주민자치회 후원금 등으로 마련됐다. 이문세 신길동주민자치회장은 “지역아동센터가 아이들을 안전하게 양육하는 중요한 시설인 만큼 일회성 후원에 그치지 않도록 많은 주민이 함께했으면 한다”고 말했다.



원곡동 원곡동바르게살기위원회, ‘효(孝) 나눔 행사’ 개최

원곡동바르게살기위원회는 지난 11월 8일 한아름경로당, 귀향민경로당 등 귀한(歸韓) 동포 어르신을 위한 ‘효(孝) 나눔 행사’를 열었다. 이날 행사는 위원들이 정성스럽게 준비한 중국 본토 음식을 대접하고 담소를 나누는 시간으로 진행됐다. 한편 원곡동바르게살기위원회는 매년 중국 만두, 김치 나눔 등 지역사회 어르신을 위한 봉사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와동 와동주민자치회 마을복지분과, 후원금 기탁

와동주민자치회 마을복지분과는 지난 11월 1일 취약계층을 위한 ‘와동 행복 나눔 더하기와 나누기’ 일환으로 마련한 후원금을 와동행정복지센터에 기탁했다. ‘와동 행복 나눔 더하기와 나누기’는 매년 관내 유관단체 및 기업체, 소상공인, 주민이 모여 따뜻한 나눔을 실천하는 행사다. 이번 후원금으로 마련한 쌀, 라면, 간편식품 등은 관내 취약계층 가정 등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 전달됐다.





독자투고

강희숙(단원구 호수동)

다문화 도시 안산에서 ‘꿈’을 꾸다

안산에 온 지 벌써 40년이란 세월이 흘렀다. 우리 부모님은 신도시 개발을 기대하며 초등학교생이었던 나를 데리고 일찌감치 안산에 자리를 잡았다. 복잡한 서울을 떠나 도착한 당시 반월면은 허허벌판이었다. 학창 시절 내내 논밭 길을 가로지르며 학교 다닌 것도 생생하고 진흙이 잔뜩 묻은 신발을 매일 닦아내며 엄마에게 투정을 부린 기억도 떠오른다. 안산은 나에게 동심의 세계를 선사하는 꿈을 꾸게 한 제2의 고향이 됐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잠시 방황한 적이 있다. 대학에 들어가지 못한 나는 원곡동에서 첫 사회생활을 시작했는데 당시 원곡동은 안산의 변화가였다. 원곡동에 직장이 있는 나를 부러워하는 친구들도 있었다. 결혼 후에 직장을 그만두면서 원곡동과의 인연도 끊어졌다. 당시 공단이 조성되면서 원곡동에는 많은 외국인 노동자가 밀물처럼 들어왔다. 외국 음식점들이 생겨났고 급세 원곡동은 내국인보다 외국인이 더 많은 동네가 됐다. 원곡동은 전국에서 가장 많은 외국인이 사는 도시로 집중 조명됐다. 원곡동을 다시 찾은 것은 그 후 10년의 세월이 흐른 뒤였다. 원곡동의 한 단체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하게 됐는데 모교인 원곡고등학교가 있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원곡동에서 외국인을 위한 일에 첫발을 내딛게 됐다. 그 일은 지금의 나를 만들었고 꿈을 이루는 중요한 순간이 될 줄은 더더욱 꿈에도 몰랐다. 원곡동이 다문화특구로 지정되면서 전국에서 많은 방문객이 안산을 탐방하기 위해 이곳을 찾아왔다. 정부나 지자체 등도 다문화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인식하면서 많은 활동을 펼쳤다. 다문화의 ‘다’자도 몰랐던 나는 공부를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대학원에 들어가 다문화 교육을 전공하기 시작했다. 왜 다문화 도시가 되었고 다문화가정을 도울 방법은 무엇인지 등 공부의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외국인 관련 상담 등 여러 활동을 병행하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았다. 나도 모르는 사이 다문화 현장 전문가로 성장하고 있던 것이다. 현재 다문화 관련 단체를 운영 중인 나는 지역신문사에서 다문화 전문 기자로 활동 중이다. 꿈 많던 학창 시절, 다문화 관련업이 꿈이 되리라고 상상도 하지 못했는데 도시 발전과 나의 성장이 맞물리면서 자연스럽게 다문화 현장 전문가로서 꿈을 이루게 됐다. 다문화 도

시 안산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꿔놓은 것이다. 내가 안산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하다. 새삼스럽지만 여린 고사리 같은 손을 붙들고 안산 땅을 밟으셨던 부모님께 고맙다는 생각이 든다. 내 경이로운 인생의 시작이었으니깐!





독자투고



박가을(상록구 사이동)

대부도 곁 바다

호수배가 불룩하도록
다 마셔버렸습니다

겨울을 걸쳐 두었던
꺼칠한 갈대숲어찌하나요
목이 말라서
어석어석 소릴 냅니다

석양빛
호수는 전라의 은빛 물결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조금 남겨두었어야 했는데
노송 그림자도
우두커니 하늘만 바라봅니다

바람결에 흔들리는
마음뿐
그대는 아시나요

해솔길

단원 김홍도
붓끝이
은빛 대부도를
화폭에 담아 놓았다

솔 향기
폐부를 찌르듯이
바닷냄새가
아,
어머니 품속 같은 해솔길





나비잠



출생년월 2020년 7월

정이든(여)

사랑하는 우리 손녀 이든아! 네가 태어났다는 기쁜 소식을 들은 게 엇그제 같은데 어느새 이렇게 커서 말문이 트이고 예쁜 재롱으로 온 가족을 기쁘게 해주는구나. 이든이가 엄마 배 속에 있다는 걸 들은 그날부터 할머니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던 걸 잊지 말렴. 착하고 어진 사람이 되길 바라며 지은 네 이름처럼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인정을 얻으며 주변에 좋은 영향력을 끼치는 아이가 되길 바란다.

장길례(상록구 본오3동)



정시우(남)

출생년월 2021년 1월



항상 건강하던 시우가 얼마 전 아파서 입원했을 때 온 가족이 매일 걱정하고 마음이 아팠는데 어린 나이에도 시우가 씩씩하게 잘 이겨내줘서 기특하고 정말 고마워. 아프지 말고 건강하게! 앞으로 엄마, 아빠와 행복한 추억 더 많이 만들자! 사랑해♥

유연희(상록구 율피동)

김지안(여)



출생년월 2021년 2월

사랑하는 우리 딸 지안아! 지안이가 우리 곁에 온 지 벌써 21개월이 됐네. 그동안 크게 아프지 않고 건강하게 자라줘서 엄마, 아빠는 정말 고마워. 다른 사람들의 시선 생각 말고 소신 있고 당당하게 크길 바랄게! 엄마, 아빠에게 와줘서 고맙고 다시 한번 사랑한다!

김서희(단원구 호수동)





나비잠



출생년월 2022년 5월

‘첫째도 사랑이지만 둘째는 더욱 사랑’ 너와 함께한 6개월. 늘 생각하고 느끼는 것이지만 사랑이와 이레, 너희들과 함께 살아갈 삶을 상상하고 계획할 수 있다는 것이 너무도 감사해. 함께 나아갈 그 행복한 삶을 생각하면 지금의 힘들과 어려움들이 머릿속에서 모두 지워지는 것만 같아. 함께해줘서 정말 고맙고 어제보다 오늘 더 많이 사랑할게♡

강현경(단원구 초지동)

주이레(남)



강하이(여)



출생년월 2020년 11월



사랑하는 하이야! 하이를 통해 날마다 기쁨과 사랑을 받아 엄마와 아빠는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하이도 이 기쁨과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사람이 되길 기도할게. 사랑을 누리고 나누는 하이가 되기를 바라며 우리 가족이 그렇게 누리고 나누며 살아가자! 사랑해♡ 하이야~♡

강병천(상록구 해양동)

안산톡톡에서 시민 여러분의 다양한 사연을 모집합니다.



사연과 함께 연락처, 주소, 글과 관련된 사진을 ansannews@korea.kr로 보내주세요. 사연이 채택되면 5만원 상당의 원고료를 다온 상품권으로 드립니다.

독자투고



주제 생활담(자유주제), 특색있는 안산시 이야기
분량 A4용지 1/2, 관련사진

나비잠



주제 생후 36개월 이내 아이를 둔 가정의 출산·육아 이야기
분량 150자 내외, 아기사진

ADIOS 2022!

안산시민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올해 제 목표는 결혼과 임신이었는데 많은 축하 속에서 결혼식도 올리고 감사하게도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습니다. 안산에서 태어나 이곳에서 결혼과 임신까지 할 수 있어서 행복합니다. 2023년 1월이 출산 예정인데 내년 한 해도 행복과 감동이 가득한 한 해가 될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는 저에게 과분할 정도로 행복과 감사가 넘치는 한 해였습니다. 얼마 남지 않은 올해도 행복하게 잘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민영(단원구 선부1동)



LEVEL UP!
2022

나도 이제 취준생에서 직장인으로 LEVEL UP! 간절히 바라던 회사에 합격한 것이 올해 가장 행복한 일입니다. 암울했던 불합격의 늪을 지나고 보니 포기하지 않고 도전했던 제가 자랑스럽고 대견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뿐만 아니라 이 글을 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앞날을 응원합니다!

정수연(단원구 호수동)



우연히 레고랜드 입장권이 당첨되어 세 식구 가족여행을 다녀왔어요. 1박 2일 동안 정말 신나고 재밌게 힐링하고 왔습니다. 딸이 정말 좋아해서 기분이 좋았어요. 코로나19로 가족끼리 여행을 못 갔는데 얼마 전에는 친정 식구들과 함께 1박 2일 제주도 여행을 다녀왔어요. 올해 목표가 여행이었는데 목표를 이룰 수 있어서 뿌듯합니다. 남은 2022년도 행복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경연(단원구 선부1동)

코로나19로 지난 2년 동안 못 갔던 휴가를 어머님 모시고 다녀왔어요. 아버님께서 하늘나라가 가시고 코로나19로 외출이 어려워 답답해하셨는데 아들, 며느리, 손자, 손녀와 함께 여행을 갈 수 있어서 좋았다고 말해 주셔서 며느리로서 마음이 몽클하고 뿌듯했습니다. 가족이 함께한 휴가가 올해 행복했던 기억입니다!

강선미(상록구 본오2동)



LOVE
ANSAN~



올 한 해 안산의 사계절을 볼 수 있는 곳곳을 돌아다녔는데 서해안 낙조 명소인 대부도가 가까이 있어 코로나19로 답답했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었습니다. 올해 취업도 하고 열심히 일한 저에게 상을 주고 싶습니다. 수고했어. 잘 해냈어. 내년에도 올해처럼 파이팅 하자!

강명선(단원구 선부3동)

박물관을 유난히 좋아하는 우리 아이들! 주말이면 박물관에 가자고 아우성이라 광고로, 서울로 박물관 투어를 가곤 합니다. 그런데 안산에도 박물관이 생겼습니다. 특별한 말이 없는 날이면 안산산업역사박물관에서 하는 3D영화와 가상 스튜디오를 예약해서 메타버스 체험까지 하고 옵니다. 우리 아이들이 정말 좋아해요. 안산에 근대식 박물관이 생겨서 행복합니다.

김병규(상록구 사이동)



HAPPY
NEW YEAR!



코로나19 사태 이후 3년 만에 다시 교육 분야 일에 복귀하게 되었습니다. 경력 단절로 불안했지만 좋아하는 일을 다시금 할 수 있어서 참 행복한 요즘입니다! 사진은 퇴근길 하늘입니다!

이영주(단원구 선부1동)



올해는 기쁜 일이 참 많았어요. 특히 안산시도서관에서 주최하는 독서 프로그램에서 저희 아이가 제일 큰 상을 받았어요. 평소에 책을 안 읽으려고 해서 함께 읽기도 하고 때론 읽어주면서 얻은 노력의 결실이라 정말 기뻐 아들과 부둥켜안고 한참을 웃었어요! 앞으로도 아이들이 밝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곁에서 응원하고 함께하는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앞으로도 아이들에게 많은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안산시 파이팅!

구해자(단원구 초지동)



지난 2년 동안 코로나19 사태 집에 콕 박혀 지냈었는데 올해는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온 가족이 대부도 방아머리 해변에 다녀왔습니다. 무더운 여름날 갯벌을 걸으면서 조개도 캐고 아름다운 자연을 온종일 누릴 수 있어서 행복했습니다.

박옥자(단원구 신길동)



추천도서

이달의 주제 크리스마스에는 책만 있으면 돼

어린이



1 신비한 겨울 숲의 동물들

저자 캐런 브리운 / 그림 조지나 티 / 출판 사파리
겨울 숲속 동물의 모습과 특성을 생각해본 다음 불빛을 비춰 정답을 확인하다 보면 어느새 겨울 숲속 동물 박사가 될 것이다. 동물들이 사는 곳이나 먹이 저장 방법, 겨울나기 방법 등을 퀴즈 놀이처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다.



2 줄러 줄러 크리스마스

저자 타키하시 카즈에 / 출판 천개의바람
겨울잠을 자기에 크리스마스를 지낸 적 없던 곰 가족이 겨울잠을 꼭 참고 첫 번째 크리스마스를 준비한다. 곰 가족은 서로 줄면 어떤 것을 헤서라도 깨워주기로 한다. 곰 가족은 과연 무사히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을까?

청소년



1 달려구트 꿈 백화점

저자 이미예 / 출판 팩토리나인
잠들어야만 입장이 가능한 꿈 백화점에서 일어나는 비밀스럽고 기묘하며 가슴 뭉클한 판타지 소설. 꿈 백화점에서 만나는 다양한 사람들의 이야기는 현실에서 지친 사람들에게 잔잔하면서도 따뜻한 위로를 건넨다.



2 책들의 부엌

저자 김지혜 / 출판 팩토리나인
앞만 보며 달려온 주인공 유진은 우연히 찾아가 소양리에서 마법에 걸린 듯 북 카페를 연다. 책을 추천해주고 책과 어울리는 맛있는 음식을 먹으며 위로받는 곳 '소양리 북스 키친'은 그렇게 문을 연다. 사연이 가득한 '소양리 북스 키친'으로 함께 떠나보자.

성인



1 미스터리 서점의 크리스마스 이야기

저자 에드 맥베인, 로렌스 블록 / 출판 북스피어
크리스마스 밤 '미스터리 서점'에서는 서점 이름처럼 살인, 절도, 사기 등 미스터리 한 다양한 사건이 일어난다. 탐정과 서점 직원, 고양이 가 각자의 방법으로 미스터리를 풀어내는 과정을 담아 독자의 호기심을 자극한다.



2 스노우 시스터 : 아름답고 따뜻한 크리스마스 이야기

저자 마야 문데 / 그림 리사 아이시토 / 출판 한길사
사랑하는 이를 떠나보낸 뒤 찾아온 크리스마스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다. 상실감에 가슴 아파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크리스마스를 맞이할 수 있도록 따뜻한 위로를 건넨다. 환상을 넘나드는 마법 같은 이야기를 통해 치유의 기적을 느껴보자.



안산시중앙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더 많은 자료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안산시중앙도서관 전화 031-481-2703 / 홈페이지 <https://lib.ansan.go.kr>

경기도미술관 전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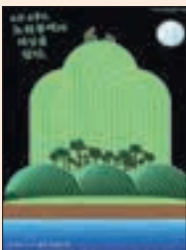


경기라키비움 김정현
<소위 잡초에 대하여>
기간 2022.10.20.(목)~2023.3.5.(일)
장소 경기도미술관 1층 프로젝트 갤러리
참여작가 김정현
내용 '잡초' 연작(1974)을 중심으로 김정현 작가와 1970년대 한국 현대 미술사를 재조명
관람료 무료



2022 경기작가집중조명 <달 없는 밤>
기간 2022.11.24.(목)~2023.2.12.(일)
운영시간 10~18시 (매주 월요일 휴관)
장소 경기도미술관 2층 기획전시실
참여작가 기슬기, 김사하, 천대광
내용 경기 중진작가 전시와 경기문화재단 작가집중조명 초청 공모 협력 프로젝트
관람료 무료

안산문화재단 전시



2022 단원 콘텐츠 교육전시
<소년 김홍도, 노적봉에서 세상을 그리다>
기간 상설전시
운영시간 화~일요일 10~18시
장소 김홍도미술관 3관 2층
내용 김홍도가 유년시절을 보낸 당대 문화예술의 중심 안산을 탐색해보는 전시
관람료 무료



대부도 예코뮤지엄 상설전시 <재속시절>
기간 2022.11.~2023.11.
장소 옛 대부면사무소
내용 지역 예술인이 만든 짚풀 공예전
관람료 무료



2022 경기 시각예술 성과발표전 생생화화 <사이의 언어 the language between>
기간 2022.11.29.(화)~2023.1.29.(일)
운영시간 화~일요일 10~18시
장소 김홍도미술관 1, 2관
내용 경기도기반 활동 우수 작가들의 최근작 전시
관람료 일반 4천원
 안산시민, 초·중고, 군안경찰 2천원
 미취학아동 및 65세 이상, 장애인 무료

안산문화재단 공연



연극 <전태일-네 이름은 무엇이나>
일시 12.2.(금) 19시 30분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내용 고단한 우리에게 선물처럼 찾아온 10명의 전태일이 들려주는 삶과 희망의 노래
관람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Sac on Screen <스퍼릿 오브 베토벤>
일시 12.9.(금) 19시
장소 소극장 보노마루
내용 영상으로 만나는 베토벤 대표작들
관람료 무료



뮤지컬 <스페셜 5>
일시 12.23.(금) 19시 30분
 12.24.(토) 15시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달맞이극장
내용 별난 아이 제이크가 보통 아이가 되기 위해 떠나는 여행
관람료 R석 3만원, S석 2만원



크리스마스 콘서트 <유키 구라모토와 친구들>
일시 12.25.(일) 17시
장소 안산문화예술의전당 해돋이극장
내용 케이코보다 달콤한 낭만과 감성 가득한 크리스마스 콘서트
관람료 R석 7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

대관 공연 등 더 많은 내용은 홈페이지
 등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관명	홈페이지	문의전화
안산문화재단	www.ansanart.com	080-481-4000
경기도미술관	gmoma.ggcf.kr	031-481-7000

2023년 동계 대학생 행정체험연수 참여자 모집

신청기간 11.23.(수) 10시 ~ 11.30.(수) 18시
모집인원 200명 (일반 140명, 사회적배려자 60명)
자격요건 공고일(11.16) 기준 안산시에 주민등록이 돼있는
 국내대학 재학생
신청방법 안산시 홈페이지▶분야별정보
 ▶경제/일자리▶취업정보▶행정체험연수
선발방법 추첨프로그램 이용 전산추첨
선발자발표 12.16.(금) 10시 (안산시 홈페이지 공고 및 개별 문자메시지 전송)
문의 안산시 경제일자리과 031-481-3983

※ 근로기간 및 조건 등 자세한 사항은 안산시 홈페이지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023년부터 안산화폐 ‘다온’이 달라집니다!

변경 내용

구분	기존	변경
사용처	등록된 모든 다온 가맹점	10억 이상 일반업종, 50억 이상 슈퍼·도소매는 사용 제한 (병원·약국·학원은 제외)
발행 형태	카드 및 지류 발행	카드 발행, 지류 판매 중단 (지류 사용은 구매일로부터 5년까지 가능)

문의 안산시 민원콜센터 1666-1234
 안산시 경제일자리과 031-481-3917, 2921

안산시평생학습관 개관 10주년 기념 <2022 영그는 마당>

일시 12.2.(금) 10~17시
장소 안산시평생학습관
신청방법 안산시평생학습관 홈페이지
 (learning.iansan.net)
내용 공연, 전시, 체험 부스, 원데이클래스, 명사 특강
초청명사 김혁건(더크로스 보컬),
 박재식(과학자 및 SF소설 작가)
관람료 안산시평생학습관 031-409-1877

2023년 환경개선부담금 연납 안내

신청기간 2022.12.1.(목)~2023.1.31.(화) 18시
납부기간 2023.1.16.(월)~2023.1.31.(화) 23시 30분
신청대상 2012년 7월 이전 생산된
 경유자동차(유로 5·6, 저공해차량 등 제외)
문의 안산시 민원콜센터 1666-1234
 안산시 환경정책과 031-481-2883~4, 2886

연납이란? 매년 2회(3월, 9월) 부과되는 환경개선부담금을
 1월에 10% 할인된 금액으로 일시에 납부 하는 제도

안산시이동노동자쉼터 ‘힐링’ GRAND OPEN

개점일 2023.1.2.(월)
운영시간 평일 9시~익일 6시 (토·일요일·공휴일 미운영)
위치 호수동우체국 2층(단원구 광덕2로 186)
문의 안산시 노동정책과 031-481-3276

힐링이란 휠(wheel)과 힐링(healing)의 합성어로
 이동노동자들의 발(바퀴)과 휴식을 상징합니다.

도서 전시 <문해력을 알려드립니다>

기간 12.1.(목)~12.31.(토) 9~18시
장소 본오도서관 2층 종합자료실
대상 도서관 이용자 누구나
내용 읽기·쓰기 기초체력 길러주는
 문해력 관련 도서 전시
문의 031-481-3697~8



방송 TALK TALK!



B tv <한빛뉴스> 11월 3일
한양대-안산시 둘레길 조성 '맞손'



B tv <한빛뉴스> 11월 11일
대부도 서해안 대표
해양관광도시로 키운다



TV조선 <복덩이 들고> 11월 16일
풍도 어르신들과
송가인, 김호중의 특별한 만남



SBS <2022 희망TV> 11월 18일
자원순환 우수 사례로
안산시 재활용센터 소개

안산시 일자리센터를 소개합니다!

안산시 일자리센터 운영 안내

운영시간 평일 9~18시
장 소 안산시청 민원동 2층
내 용 구인·구직상담 및 알선, 일자리 정보 제공
문 의 031-481-2919

일자리 발굴 <기업 생생정보통> 운영

일 시 평일 9~18시
대 상 안산 인근 지역 기업 모두 가능
참여혜택 맞춤형 인재 추천, 비대면 화상 면접장 이용
채용대행·동행면접·상설면접서비스 제공
문 의 031-481-2882, 2919

2022년 AI 면접 체험 이용 안내

운영시간 평일 9~18시 (매주 목요일은 이용 불가)
장 소 안산시스마트워크센터 AI 화상면접 체험관
(안산시청 제2별관 1층) 또는 자택 등 선택 가능
대 상 안산시민 누구나 (사전 예약 필수)

신청방법 방문, 유선 또는 안산시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
내 용 AI(인공지능) 면접 체험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한 AI 역량평가)
문 의 031-481-2277

안산시 일자리센터가 '내 일(JOB)'을 찾아드립니다

구분	행사명	행사규모	장소	문의
12월 1일(1주차)	목요일에 희망 잡(Job)고(Go)	구인 업체 3개 / 구직자 20명	안산시청 제2별관 1층 화상면접장	031-481-2923
12월 8일(2주차)	행사 없음			
12월 15일(3주차)	상설면접	구인업체 1-3개 / 구직자 10명	안산시청 제2별관 1층 화상면접장	031-481-2930
12월 22일(4주차)	안산919취업광장	구인업체 3-5개 / 구직자 20명		031-481-2919
수시	상설면접	업체 요청 시 수시 진행		031-481-2880

12월 톡(TALK) 퀴즈

<안산톡톡>에 담긴 이야기를 꼼꼼히 읽은 후 정답을 찾아보세요.

퀴즈 및 이벤트 참여 방법 등은 안산시 SNS, e-안산톡톡 홈페이지 또는 우측 QR코드를 스캔하면 확인할 수 있습니다.

@ansancity

@ansancity3

안산시청

ansancity

@ansancityhall

e-안산톡톡 www.ansantalktalk.net



12월 톡퀴즈 참여기한 12월 21일까지 11월 호 정답 ①, ③

김장철 음식물 쓰레기 배출 방법 안내드립니다!



배출방법

김장쓰레기가 적은 경우

- 단독(다가구)주택 음식물폐기물 종량제봉투 사용
-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수거용기(120리터)에 납부필증 스티커 부착 후 배출

김장쓰레기가 많은 경우

- 단독·공동주택 동일하게 일반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 (흰색-50리터)에 담아 배출
- 2022년 12월 말까지 한시 적용함

유의사항

- 김장쓰레기(채소류)만 담아야 하며
일반 생활폐기물과 혼합 배출할 경우 미 수거
(흙 묻은 배추, 마늘·양파껍질, 뿌리류 등은 일반쓰레기로 혼합 배출 금지)
- 일반 생활폐기물 종량제봉투에 배출하지만 음식물폐기물임을
쉽게 알 수 있게 음식물 수거 용기 옆에 배출 요망